



데렌 루 시놀로지 CEO “SW가 우리의 미래다”

데렌 루(Derren Lu) 시놀로지 CEO가 방한했다. SW 엔지니어로 시놀로지에 입사, 시놀로지 최초의 네트워크 스토리지(Network-Attached Storage, NAS) 개발을 주도한 그가 2015년 3월 다시 시놀로지의 CEO 직에 올랐다. 2010년 시놀로지의 수장이 된 후 2012년 프랑스 지사 총괄로 임명됐다가 다시 시놀로지 대만 본사 CEO로 복귀했다.

그는 시놀로지를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말한다. 네트워크 스토리지 ‘NAS’가 하드웨어이기는 하나 핵심은 소프트웨어라는 걸 강조한 말이다. 시놀로지는 전 세계 550여 명의 직원 중 300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어쩌면 시놀로지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CEO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데렌 루 CEO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 치우고 있다(Why software is eating the world)는 마크 앤더슨(Mark Anderson) 넷스케이프 창립자의 말처럼 우리의 비전도 소프트웨어”라며 “소프트웨어가 곧 우리의 미래”라고 힘줘 말했다.

시놀로지 설립 순간을 지켜본, 시놀로지를 속속들이 아는 그가 CEO 직에 오른 후 고심한 단 하나는 핵심 타겟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시놀로지는 성장을 하면서 내부 역량이 이곳 저곳으로 흩어졌었다. 고심 끝에 그가 주목한 세 가지는 가상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보호다. 그리고 이를 시놀로지 NAS의 심장인 차기 NAS OS ‘DSM(DiskStation Manager) 6.0’에 담았다. DSM 6.0, 그가 한국을 찾은 이유다.

데렌 루 CEO는 “한국은 시놀로지에게 중요한 시장이다. 아

직 3분기이나 올해 목표를 거의 달성했고 연말쯤 초과할 수 있을 만큼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바로 한국”이라고 밝혔다. 시놀로지는 2004년 그들의 첫 NAS를 선보인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340만 대의 NAS를 출하했다. 그들의 핵심 소프트웨어 ‘DSM 5.2’로 업그레이드한 액티브 유저 수는 150만 명을 넘었다. 모바일 기기에 비하면 적은 수치나 기업의 전유물인 NAS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수치라는 게 데렌 루 CEO의 설명이다.

그는 “가상화는 오늘날 기업의 비즈니스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제 시놀로지 DSM은 선도적인 가상화 솔루션 VM웨어,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와 상호 호환되도록 가상화하고, 컨테이너 기술 도입으로 멀티테넌시 요구에도 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DSM 6.0은 도커 DSM으로 단일 NAS에서 다수의 가상 DSM을 운영,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 DSM으로 여러 대의 기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중단 없이 실시간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 뿐 아니라 클러스터 확장도 더 유연해졌다. 컨테이너, 가상화 수용에 따른 자원 부족은 64비트 채택으로 해소했다. 64비트 아키텍처로 기존 4GB 메모리 용량의 벽을 넘어섰다. 또 여러 개의 볼륨을 묶어 페타바이트 용량의 단일 볼륨 구성도 가능해졌다.

기업 비즈니스에 있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빼놓을 수 없는 테마다. 기업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기업 내 협업과 비

즈니스 생산성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서비스 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구현하기를 원한다. 시놀로지 NAS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지향하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데렌 루 CEO는 기업들이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치와 강점을 잘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축과 운영을 돕는 게 시놀로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DSM 6.0에는 협업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킬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됐다. 정보 보안 중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메일 플러스, 무제한으로 수정 이력이 관리되고 실시간 공동작업이 가능한 스프레드시트가 그것이다. 이들은 기업이 데이터 통제력을 완전히 갖게 하면서도 플랫폼을 넘나드는 협업을 지원한다.

시놀로지 DSM 6.0에서 중점을 둔 마지막 하나는 데이터 보호다. 데렌 루 CEO는 “데이터 보호는 비즈니스에 있어 언제나 중요한 주제이나 대부분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은 최근 보안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그 원인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우리는 데이터 보호를 다시 생각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스토리지 장애로 인한 다운타임과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길 원한다. 고가용성(HA)은 이를 가능케 하지만 동일한 하드웨어가 필요해 비용 부담이 적잖다. 반면 DSM 6.0은 고급 Btrfs 파일시스템을 지원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시스템 이터라도 스냅샷 페일오버(failover)가 가능하다. 장애 시 복구 시스템이 운영 시스템으로 바로 교체돼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파일 단위의 백업에서 블록 단위로 바뀌 백업 속도도 빨라졌고, 데이터 중복 제거로 저장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놀로지는 DSM 6.0에 데이터 공간 효율성을 위해 외부 클라우드와 연계하는 요즘의 비즈니스 트렌드인 오토 티어링 기능도 탑재했다. AWS S3, 아마존 클라우드 드라이브 등의 외부 클라우드와 연계 지원으로 자주 쓰는 핫데이터는 NAS에,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콜드 데이터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게 했다. 스냅샷을 통해 5분 전으로 복구 가능하고 스냅샷을 다양한 복구 지점에 저장하고 복원할 수도 있는 등 클라우드 동기화, 데이터 보호, 재해복구 기능이 강화됐다.

데렌 루 CEO는 “이전 세대도 어느 정도 모듈화돼 있었으나 DSM 6.0에서는 더 세분화됐다”고 밝혔다. 모든 업그레이드는 리스크를 수반한다. 업그레이드 시 처음에는 꼭 필요한 일부를, 차후 업그레이드를 확대하는 식의 선택이 가능해 비즈니스의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Q. DSM 6.0과 함께 노트, 메일 플러스 등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내놨다. 시장에는 분야별 킬러앱이 이미 많다. 직접 앱을 개발하기보다는 API 등을 통해 이런 앱들과 연동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체 앱 개발을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DS 비디오, DS 노트, DS 파일 등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것은 DSM의 패키지 센터 내 앱을 다양한 멀티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질문한 것에 대해 최근 개발팀과 논의했었다. DSM 6.0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기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다음으로 API를 고려하고 있다. 아직은 다음 로드맵에 고려하는 정도다.

Q. IoT가 가져올 데이터 폭증의 해결책으로 로우 데이터의 전처리와 이종 IoT 프로토콜간의 연결을 돕는 IoT 게이트웨이가 논의되고 있다. IoT 게이트웨이는 데이터 분석과 저장을 필요로 한다. NAS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IoT 시대에 NAS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기술 동향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관심사다. IoT는 아직 시기 상조라고 보고 있다. IoT가 좀 더 현실화 된다면 DSM 6.0에 이르러 NAS에 웨어러블 기기를 접목했듯 차후 IoT 활용을 고민할 수도 있다.

Q. 패키지 센터는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또 개발자들이 패키지 센터에 앱을 배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시놀로지의 개발 플랫폼은 유연하다. DSM의 패키지 센터의 월 평균 다운로드 수는 100만 회를 넘어설 만큼 활성화돼 있다. C, C++, 자바, 펄, 파이썬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할 뿐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 전체적인 개발 순서는 신청, 제작, 검증, 게시의 네 단계다. 패키지 제작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개발도구, 플러그인 제작을 위한 리소스 등이 필요하다. 개발이 완료되면 시놀로지에 패키지를 제출하고 검증을 거치게 된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패키지 센터에 해당 패키지가 게재된다.

시놀로지의 주 고객은 기업이다. 그러나 개인 소비자 수도 적지 않다. 특히 한국은 유독 일반 사용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신 기술 수용이 빠른 특성 때문일 터. DSM 6.0, 일반 소비자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무엇일까. 데렌 루 CEO는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을 멀티스크린 라이프 스타일(MultiScreen LifeStyle)이라고 정리하며 디지털 스트리밍, 모바일&웨어러블 등의 트렌드를 DSM 6.0에 어떻게 녹였는지 설명했다. “모바일에서 웨어러블로까지 멀티스크린 지원을 확대해 이제 애플워치에서 DS 노트, DS 오디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DS 비디오는 완전히 새로이 디자인됐을 뿐 아니라 오프라인 트랜스코딩과 원도 우10도 공식 지원하는 게 DSM 6.0의 새로운 변화”라고. +

조수현 기자 suhyeon@imaso.co.kr